

“정권교체 이뤄 민생·서민경제 챙겨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설 민심

설 연휴 지역구를 찾아 민심을 탐방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빛어진 국정혼란에 대한 분노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지역민의 고민을 피부로 느꼈다. 의원들은 “정권교체를 통해 우리 사회 적폐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도 살려 줄 것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18석 가운데 16석을 차지한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생문제 해결, 정권교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최근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며 국민의당 입지를 다시 세우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 단 1명뿐이지만 탄핵정국을 거치며 민주당 대선 주자들과 민주당 지지율이 앞서자 설 연휴 민심 챙기기에 더욱 공을 들였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어느 때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컸고 탄핵과 정권교체에 대한 걱정과 열망이 매우 높았다”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하지만 문재인은 싫고 안철수는 부족한 것 같아 그 사이에서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국민의당이 야권 대통합과 개헌을 주도하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결국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현재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과연 맞는지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며 “정당별로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인화(광양·구례·곡성) 의원은 “국민의당을 확장하려면 판을 키워야 하고 방법으로는 제3지대론 밖에 없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를 해주신다”고 설명했다.

경기불황과 무너진 서민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자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걱정도 전했다.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매출이 줄

고 손님이 아예 없다. 경기가 단순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며 “특히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못 해 대책이 없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매주 지역구를 찾지만 이번 명절 연휴 귀향하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설 인사를 대신했다.

박 대표는 “10년 만에 명절에 귀향 활동하지 않고 연휴기간 몇 분과 만난다”며 “대선 정국이 불투명하지만 탄핵도 개혁

입법도 대선을 위한 빅텐트도 부지런히 준비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 나서자고 제안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계호(담양·함평·영광·장성) 전남도당 위원장은 “야권 대통합을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컸다”며 “반문정서도 총선 때보다 많이 열어졌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열망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충형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 설민심 ‘아전인수’

“우세 굳혀” “바닥쳤다”

더불어민주당과 ‘호남 맹주’인 국민의당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의 각종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광주·전남 민심이 정권교체가 가능한 민주당으로 확인하게 돌아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지역 민심 근거에 반문(반 문재인) 정서가 여전하고 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선 전에 반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계호 의원은 30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설 민심에서 정권교체는 절대적 명제였다”며 “기존의 반문(반 문재인) 정서도 많이 없어졌

으며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반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원내 제1당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하고 있으며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역시 확고한 선택보다는 대안 부재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직까지 광주·전남 민심 흐름이 관망

세가 강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손학규 의장, 정운찬 전 총장 등이 합세한다면 국민의당이 대선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났다.

권위의 국민의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국민의당의 낮은 지지율 등에 대해 실망감도 보였지만 기대감도 높지 않았다”며 “국민의당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이 안타까운 반응을 보여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그리 마음 편해하지는 않았으며 지속 여부에 의문을 나타내는 분도 많았다”며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고 국민의당이 이번 대선을 통해 지역이나 편 가르기 정치를 해소하고 호남 주도의 정권 창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유승민 “보수후보 단일화 하자”

대선 출마 공식선언... “황교안 생각 있다면 당장 나와야”

바른정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의원은 30일 “문재인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보수 후보로 단일화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며 ‘단일 보수 후보론’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수가 나아가 갈 큰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인물론으로 승부하고 싶다”면서 “다음 대통령의 능력, 개혁 의지, 개혁 해법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대선 출마설이 도는 황교안

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대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반에 하나 황 총리가 대선 출마 생각이 있다면 당장 결심하고 나와야 뜻뜻한 것이지 끝까지 계산하고 눈치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결심해 나라가 또한 번 혼란스러워지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오늘 국민의 분노와 좌절, 그리고 국가란 무언인가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 경선 지각변동 오나

박원순 불출마에 ‘경선’ 이미지 타격 우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경선 레이스가 출렁거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애초 이때부터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흥행몰이를 시도할 계획이었으나 박 시장의 이탈로 당황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당의 대선경선 관리의 공정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형국이다. 이번 경선에서 화합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앞서 박 시장은 당을 상대로 야권공동경선과 야권공동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나 당 최대 지분을 가진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측의 반대와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로 경선열에 반영하지 못했다.

때문에 박 시장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이번 박 시장의 불출마가 당에 대한 서운함도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심거리리는 박 시장의 불출마가 당내

대선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부른다.

일단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박 시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태에서 정채태 있었던 탓이다. 일각에서는 친노친문 패권주의에 대한 자포자기 심정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기존 구도가 고착화할 것이라 분석도 있다.

반면,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던 박 시장의 불출마가 비문 후보들의 연대로 이어져 경선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 시장이 김부경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대할 경우 그 파괴력은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3월초경 대선구도가 요동칠 경우 야권의 제 3세력과 힘을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야권의 대선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된다.

한편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예비후보로 가장 먼저 등록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정치인생 다시 시작”

박원순 대선 불출마 선언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이 저의 정치인생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패러의 땅에서 저는 다시 정기를 받음 같고 씨앗을 뿌리겠습니다”라며 “이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꿔낼 준비를 더욱 기열차게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많은 것들이 부족했으며 스스로 마음가짐, 결기도 부족했습니다”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려 하는 그 의욕만 앞섰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지난 26일 박 시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불출마 선언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박원순시장에 위로 전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30일 뒤늦게 알려졌다.

안 전 대표 대선캠프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안 전 대표가 박 시장에 설 덕담과 함께 조만간 자리를 함께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안 전 대표와 박 시장은

과거 가까웠던 관계 아니겠느냐”며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과 관련해선 “오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질적으로 박 시장의 마음을 위로한 경우는 (안 전 대표가) 처음 아니겠느냐. 설 이후 안 전 대표의 정치력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첨단 상가빌딩 매매

(첨단삼성전자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적극 추천 →

- 본사건물/지사건물/직업훈련학교/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고속도로 진입 5분)
-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주차 60대 완비
- 1층 상가 120평 2층 ~ 7층 (최고급 오피스 룸 56개) 8층 (최고급 스카이라운지)

- 감정가 58억
- 매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 문의 010-7384-7800 / 010-6670-9800

첨단지구 사무실임대

- ◆ 평수 15평 보 500만 월 40만
- ◆ 평수 12평 보 500만 월 35만

주차 60대 완비 즉시 입주 가능 투룸 가능

☎ 062-511-7800 010-6670-9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남구 월상동 (2층 상가 사무실) 토 21평, 건 95평 농성역 5분 / 6차선도로 접 넓은 평수 / 저렴한 가격 ▶감정가 4억3천 → 최저가 1억9천
- 나주 송월동 (복합 상가건물) 토 8,474평, 건 2,563평 나주혁신도시 5분!!! 수영장, 예식장, 사우나, 찜질방, 헬스장 나주 최고 복합상가 ▶감정가 160억 → 최저가 46억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광주역 1분 (코너자리) 총 30개 (달방수익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5억3천
- 동구 금남로 (3층 상가건물) 토 17평, 건 250평 금남로 47면, 57기 1분 8차선 도로 접 ▶감정가 21억 → 최저가 9억5천

직원 모집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 분 모집니다.
(공인중개사 환영)

010-7384-7800 062-382-5500